

청소년심리(靑少年心理)

趙 斗 英*

Adolescent Psychology

Doo-Young Cho,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6(2) : 97-103, 1998* —

Adolescence can be defined as the period between pubescence and physical maturity, and the passage through adolescence(age of 12 - 19) forms a critical period. Major developmental tasks of adolescence are construction of an emancipated identity, realistic ambitions, and reasonable ideals,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sexual and social identities. In early adolescence one struggles to adjust psychologically to the spurt in growth and tensions filled with sexual and aggressive impulses. There are reshuffling of peer groups due to differing rates of maturation, early adolescence crushes, sublimation of sexuality, and the resurgence of oedipal feelings. One reaches so-called period of formal operations in cognitive development.

In mid-adolescence one struggles to overcome family attachments and controls, and it is a time marked by revolt and conformity. One has to overcome sexual repression while caught in reactivation of oedipal attachment. Peer groups gains in importance, and the peer group changes into a youth group that carries the youth culture. Late adolescence is a period of achieving an ego identity and capacities for intimacy. One has to prevent premature closure : Identity foreclosure limits both opportunity and the ability to guide one's own life. Gradually adolescent begins to have a loss self-centered and narcissistic orientation to one's sexual and affectional needs, and becomes involved in love relationship.

KEY WORD : Adolescence

우선 흔히 쓰는 용어부터 정리해 보자. 영어의 puberty란 인간이 성적 완숙을 기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만을 뜻하는데, 우리말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춘기(思春期)라 번역하고 있다. 또 영어의 adolescence란 puberty의 상환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 속한 기간만을 뜻하는데, 대개 청소년기(靑少年期)라는 우리말을 통일해 쓰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기란 물론 puberty가 아니라 adolescence를 의미한다.

청소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빨리 오고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와서 늦게 끝나는 등등의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그저 12~20세로 잡아두면 무난하다 하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Professor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다. 즉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시작과 청년기의 시작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면 된다. 사춘기의 첫 시작은 1세기에 1년 정도씩 빨라진다. 옛날 인간수명이 짧고 생활도 덜 복잡하던 때는 이 사춘기가 짧았는데 이제는 오래 살고 배울 것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춘기도 점차 길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2차성징을 포함한 신체발육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심리적 주요 적응이다. 이 시기에 있는 호르몬 변화는 청소년에 여러 면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데, 이 변화가 급격하면 할수록 청소년이 겪는 느낌의 강도와 질이 비례해서 된다. 청소년기란 인간이 독립적이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정적 폭풍의 시기요, 스트레스의 시기다. 예전대 암전하던 소년이 반항적·공격적이 되고, 모범생이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무단결석하는가 하면 정직하던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지니려 한다는 것 등등이다. 이런 감정상의 폭풍과 성격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사람이란 그의 성숙을 위한 갈등과 불안을 억압(repress)하는 사람이며 또한 이 시기의 인생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기 정상 갈등이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자의 지배도 받는데, 즉 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가족·학교·동네에서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는가에도 달렸다는 뜻이다.

청소년기 과업

인생은 각 주기(life cycle)마다 해내야 할 과업(課業) tasks이 있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나는 열 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吾十有五而志于學)'라고 말한 바 있다. 공자가 말한 학문은 좁은 의미의 공부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느냐 하는 면에서 자기 본(本)을 스스로 세웠다는 뜻이다.

미국 Harvard대학 소아분석가였던 Erikson(1950)은 청소년기의 과업을 '정체성(正體性) 수립' identity formation이라 하고, 이것에 실패하면 '정체성 방산(放散) identity diffusion이 와서 격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하였다.

미국 교육심리학자 Havighurst(1972) 역시 정체성 수립을 이 시기 주과업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밖의 과업으로 또래 이성(異性)과의 정상적 인간관계, 성인남

녀로서의 적절한 성역할, 신체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신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모나 기타 어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 결혼과 가족 생활에의 준비,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 행동기준으로 일련의 가치체계와 윤리체계 획득하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들었다.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 정신과 임상부교수요 소아정신분석학의인 Gemelli(1996)는 청소년기 심리 발달과제로 ① 독자적 정체성의 수립, ② 허무맹랑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에 부합되는 야망과 합당한 이상(理想) 갖추기, ③ 성sexual 정체성 공고화, ④ 사회적 정체성 공고화를 들었다.

전문가에 따라 청소년기를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셋으로 나누어 보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청소년전문 분석가인 미국의 Bloss(1962), Yale대학 정신과교수인 Lidz(1983), 한국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인 洪剛義(1997)가 있다. 그중 하나인 Lidz를 들어 보면, 그는 이렇게 세 분기로 나눈다.

1)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 - 이 시기는 12~14세로 보통 1년 반에서 2년을 잡는데, 몸이 확 크는 시기다.

2) 청소년 중기(mid-adolescence) - 이 시기는 15~16세에 해당한다. 이때 청소년은 또래 동성집단(same sex peer group)에서 떨어져 나와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부모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 시기요, 같은 또래 끼리는 비슷해지려고 애쓰는 확일의 시기다. 청소년은 성(性)을 탐색하며, 부모에의 의존과 부모에서의 독립 사이에 끼여 갈등을 겪으며, 기분변동이 심한 시기다.

3)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는 17~19세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시기다. 남자는 인생과 직업을 생각하고, 여자는 직업여성의 길과 가정주부의 길을 놓고 갈등하는 시기다.

청소년기를 둘로 나누는 대표주자는 Gemelli(1996)인데, 그는 이렇게 나눈다.

1) 청소년 전반기(중학생시절) - 12~15세로, 몸이 어른이 되는 일대 변혁기다. 청소년은 부모와 가족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시기며, 성적 자극과 욕구의 충족이 필요 한데서 에디프스적 소망이 다시 타오르는 시기다. 그리고 동성 또래집단을 형성하며, 자기의 소신, 규범, 가치관, 행실을 재평가하는 시기다.

2) 청소년 후반기(고등학생시절) - 16~19세에 해당한다. 이는 부모에의 의존이 줄어드는 시기이며, 하나의 독립체로서 부모와는 다른 인생관을 갖게되는 시기이며, 동성 또래집단이 자기편이 되는 시기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청소년기를 세분기로 나누어 기술코자 한다.

청소년 초기

1. 신체의 도약적 성장

종전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던 육체가 이때에 이르르면 비약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제2차 성징(性徵)의 시기를 맞는다. 남자는 성기가 커지고, 체모와 수염이 나며, 목소리가 굵어지고, 뼈와 근육이 자란다. 여자는 유방이 커지고, 골반이 넓어지고, 체모가 생기고, 월경(달결이)을 갖는다. 서양여자의 키는 11~12세부터 쑥쑥 자라기 시작해 16세로 끝나고, 서양남자 키는 12~13세부터 크기 시작해 17~18세까지 크다. 남자는 11~13세에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성적 욕구가 강하게 생기고, 아침 발기를 경험한다. 여아도 비슷한 나이에서 초경menarche을 경험하고, 성기부근에 그 어떤 감각을 느끼면서 아침잠을 깬다.

여자쪽의 발육이 남자쪽보다 1년 반에서 2년이 앞서는데, 근래는 키에서만 그렇고 나머지 성징은 단지 6개월 차이로 앞선다는 말(Gemelli 1996)도 나온다.

2. 또래집단의 개편

청소년 초기에서는 신체발육 차이가 급격히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친구사귀에 변화가 온다. 즉 예컨대 월경이 시작되고 남자아이들에게서 육체적 매력을 느끼게 되는 여자아이들은 '아직도 아이인' 종전의 친구들에게 그런 심정을 나누기를 꺼리어서 자기 비슷한 다른 아이들과 사귀기 시작한다.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이 개편되는 고로 발육이 더딘 소녀들은 뒤쳐져서 외롭다. 그러나 한편 같은 또래 소년들은 아직 급성장이 시작되지 않은 터라 이들은 어른같이 된 소녀들에게 기가 죽어 지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처진 외톨 소녀가 소년들의 인기를 뒤늦게 독차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소녀들이 소년보다 더 성(性)에 관심이 많아 끼리끼리 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몸매 변화를 비교하며, 나아가 자기 집안이야기까지 서로 한다. 소년들 역시 자기 보

다 발육이 빠른 소년들과 놀면서 성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들고, 그래서 외설에 정신을 판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어른세계가 누리는 성의 쾌락을 완전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꼴사나운' 성생활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또 그러한 환멸과 애써 싸운다.

이들은 신체발육이 특이하게 빠르거나 늦은 주위 친구들, 또는 신체기형을 가진 주위 친구들을 '아주 특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 초자아가 좀 덜 발달된 상태인지라 그런 특이한 친구들을 무시하고 놀려대는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중학교 1~2학년때 저회끼리 부쳐주는 별명은 노골적이고 야비한 형태를 띤다.

3. 여자의 사준기

여자에게 초경은 그녀는 물론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매우 뜻있는 사건이다. 말로는 '별 것 아니랴'고들 하지만 이들 모녀는 속으로 그 순간을 기다려 왔다. 그래야 비로소 그녀 몸이 정상체도에 올라와 있음을 확인해서이다. 소녀는 대개 어머니에게 먼저 초경을 알리고, 그로서 여자라는 같은 운명을 타고 낳다는 의미에서 둘은 더 가까워진다. 어머니가 월경때 어떻게 처신했느냐에 따라 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머니를 닮는다. 예컨대 어머니가 월경때 꿈쩍 않고 누워있는 버릇이 있어 왔다면 딸도 그렇게 한다. 남자로 못 태어난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소녀들이 있다면 초경은 이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갖다 준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야 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소녀는 자기를 남자로 못 낳아 준 어머니에 대한 한(恨)과 성별(性別)에 대한 좌절감을 처리할 절충 책으로 장차 수녀나 비구니가 되는 인생의 길로 들어 설 수도 있다.

소녀는 이 시기에 누구나 자기 용모변화에 신경을 쓴다. 그녀는 장차 시집을 잘 가고 못가느냐가 자기 용모에 많이 좌우됨을 절실히 느낀다. 단지 소수의 소녀들만이 여성적 매력이 용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다른 매력포인트를 개발하려고 애 쓸 뿐이다. 소녀들은 이때 스스로 자기 외모를 평가하기보다는 남들이 자기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더 예민하다. 그러니 이 시기는 특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버지가 딸을 여자답고 멋있다고 자주 칭찬해주면 그런 딸에게는 자신감이 붙어 설령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딸은 계속 자신있게 여성적 교태

를 부러려들기 때문에 사이에 실제로 매력적이 된다. 만일 아버지가 소심하여 딸의 여성적 용모변화에 당황해 일부러 거리를 떼고 무뚝뚝하게 대하면 딸은 사태를 오해해서 자기가 못생겨 그런가 보다고 지레 짐작해 열등감을 느끼며,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실제로 여성적 매력을 잃게 된다. 소녀들은 남자아이들이 자기에게 휘파람을 불어대고 말을 걸려해도 당황하고 화를 내며, 또 남자아이들이 자기 아닌 다른 소녀에게 관심을 보여도 화가 난다. 소녀들은 남자아이들이 그녀 자신이 아닌 '그녀 용모'에 반해서 추근대면 화를 내고, 또 그녀 용모가 아니라 '그녀 인간 됨됨이'에 반해서 쫓아다녀도 화를 낸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전형적 딜레마다.

청소년기 여자는 40%가 자위행위masturbation를 한다는 것이 1953년 Kinsey보고서에 나와 있고, 1973년 Sorensen 보고서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의 70%가 자위행위를 한다고 나와 있다(Lidz 1983).

4. 인지발달(認知發達)

청소년기는 지적(知的)능력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사고(思考)기능도 질(質)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다. 12세경부터는 청소년은 개념을 이해하고, 가설을 세울 줄 아는 능력을 갖기 시작한다. 어린시절에는 당장의 것만을 생각했으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그에게는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상(理想)과 사상(思想)을 이해하고 매력을 느끼며, 사물을 마음속에서 헤아리고 추측해보는 능력이 생긴다. 이를 두고 Piaget는 정상사고력(正常思考力) 또는 형식적 사고력(形式的思考力) formal thinking이라 하였다. Gemelli(1996)는 이 정상사고력의 기본특성을 어떤 문제 하나가 지니는 여러 요소들을 따로 따로 떼어놓고 모든 가능한 가설과 해결을 모색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5. 성(性)적 욕구

1) 청소년 초기 '풋사랑'

인간은 청소년기가 시작되자마자 성과 이성(異性)에 눈뜨는 것이 아니다. 대개 처음 1~2년은 그저 잠잠하다. 이들은 물론 내부적으로 성적 욕구와 자극을 받기는 하되 감히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성적 환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신체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열기를 식힌다. 그러다 차츰 이들은 이성에게, 소수는 동성 친구에게 훌쩍 반해버리는 '풋사랑'crush

을 경험한다.

풋사랑은 남자보다 여자쪽이 더 하다. 소녀들은 구김살 없이 이를 들어낸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같은 한 년상의 남자나 여자, 또는 한 남자아이를 놓고 서로가 다 '사랑에 빠졌음'을 털어놓는다. 좋은 예가 총각 선생님을 두고 여중생들이 경쟁적으로 흠모의 정을 표하는 풍경이다. 또는 가수나 연예계 스타가 그런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즉 '오빠부대'가 되는 것이다. 대개 그런 대상은 실은 청소년 자신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가 많다. 즉 자기 사랑에서 타인사랑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소년들은 이런 풋사랑이 여자를 대상으로는 아직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소년들에게 사춘기 변화가 늦게 와서라기 보다 이들이 아직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갈등에 사로잡혀서 이다. 그런 상태의 소년에게는 자기가 한 여자에게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하게 남아있어서도 그렇다.

2) 성적 욕구의 승화

소년들은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적 욕구의 열기를 옆으로 뺏아낸다. 이들은 학교공부, 신체단련, 체육특기로 두각을 나타내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욕구를 승화시킨다. 소녀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심정은 좀 더 지나서 온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사랑과 성에 관한 행동 대신 그런 환상에 젖어서 산다. 이는 특히 여자에게서 그러해서, 소녀는 한 남자아이를 두고 몇시간씩 백일몽에 젖어든다.

사회는 이런 승화에 뒷받침을 단단히 한다. 소년단, 걸 스카우트, 무슨 클럽이 있어 사회는 이들을 윤리교육과 신체활동에 묶어둔다. 종교도 저마다 학생반, 청소년반을 만들어 양심과 양식을 함양하는데 진을 빼도록 해준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에는 대학입시지옥이라는 것이 있어 중상류층 청소년들을 학업경쟁에 묶어둔다.

3) 에디프스적 감정의 재연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를 풀 마땅한 상대가 없으니 자연 가족 가운데에서 이를 발산시킬 안전한 상대를 찾게 된다. 그리하여 묵은 에디프스 열기가 다시 타오르는데, 이때의 열기는 과거의 에디프스 콤플렉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성적 느낌을 굳이 억압repress하려들지 않는다. 남자아이는 터

놓고 자기 어머니의 미모와 마음씨를 찬양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얻으려 들고, 그런 어머니를 파출부 취급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여자아이라면 이들은 어머니에게서 트집을 잡으려 든다. 이리다가 성적 느낌이 확 타오르면 이들은 스스로가 놀라고 겁나 자세를 바꾼다. 이제 이들은 이성편친(異性片親)에게서 좋지 않은 면만을 강조해 보려고 하며, 그래서 그런 편친이 못마땅하다는 논조를 띄고, 이를 계기로 돌아서 버린다. 또 좀 지나서는 같은 자세를 동성편친에게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은 결국 장차 가족 이외의 이성(異性) 가운데서 사랑할 대상을 마련할 기틀과 명분을 장만하는 것이다. 이럴 때 부모는 가슴아프지만 잘 참아주어야 한다.

청소년 중기

1. 의존과 독립 사이의 갈등

이 시기의 청소년은 부모에게서의 심리적 해방과 독립, 그리고 부모에의 의존 사이에 끼여 갈등한다. 즉 많은 청소년들이 초반기나 중반 청소년 시기에 자신은 다 컸다고 생각하며 성인취급 받기를 원하는 반면, 부모는 그대로 아이로 취급하려 한다. '이유없는 반항'이 시작되고, 부모와 청소년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며 신경전을 벌인다. 이제까지 비교적 순종적이던 자녀가 도전적, 부정적, 거부적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를 아연실색케 한다. 이러한 반항적 행동은 이제까지 소아기의 의존적이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의 발로이다. 자기는 이제 신체적으로 성장하였으니 어른으로 취급해 주고, 좀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달라는 주장이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부모를 증오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의 의존성을 부정하고 부모의 간섭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독립·자율의 추구와 부모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력은 불안을 일으키는 고로, 자연 부모의 대체물이 흔히 등장한다. 이는 선생일 수 있고 유명한 가수, 스포츠 영웅 혹은 영화배우일 수 있다. 또 새로운 관계로서 친구를 더 사귀게 되고, 절친하고 이상적인 친구를 추구하게 되겠다. 특히 여자의 경우 동성의 친구문제가 심각해져서 친구들과 인기경쟁을 하게 되고 강렬하고 심각한 교우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친구 역시 아동기의 자기 부모처럼 자기만을 좋아하고 보살피 주기를 바라는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다시 한번 과거 소아기에 가졌던 갈등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 되살아나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기도 하며, 부모의 도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적 계획을 할 수 있다.

의존·피보호에 맞들인 어린시절을 포기해야 될까 말까 하는 갈등도 이 시기에 함께 있다. 즉 이들은 어떤 때 부모가 자기를 어른취급을 해 물러앉아 있으면 화를 내면서 '왜 그리 부모로서 무심하나?'는 항변을 곧잘 한다. 요컨대 어린시절의 유대를 거부하면서도 한편 이에 집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란 정상적인 발달을 위하여 자아가 일시적으로 퇴행하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건강한 퇴행은 어린시절의 대인관계를 재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니 이 시기를 제2의 개별화과정individuation process이라 할 수 있겠다(Blos 1962; Schwartz 1974; 洪剛義 1984).

2. 반역과 획일적 순응

청소년 중기는 반역revolt과 획일적 순응conformity 이 기묘하게도 공존하는 시기다. 이들은 부모와 집안 굴레에서 벗어나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며, 무모한 행동 거지로 부모와 주위를 괴롭히니 곧 반역의 시기다. 그리고 부모 대신 선배, 스승, 다른 어른들을 자기 모델을 삼으니 부모는 허탈하고 난감하다.

이 시기는 교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집안을 떨어져 나온 이대인지라 같은 처지에서 이들은 또래끼리 뭉친다. 이 또래집단은 어린시절 또래집단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 새 집단은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집단이며, 동네아이들끼리만의 집단이 아니라 공동의 취미·관심·이상·야망을 가진 집단이며, 서로 비슷한 배경을 가진 자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에게 부모에서의 해방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 이들은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문화를 누리며, 거기에 떨어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자기 집단에 획일적으로 순응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같은 과외그룹을 짜서 학교 공부 이외의 보통일과도 엇비슷하게 하며, 우정의 나뉘에도 경쟁한다.

3. 에디프스 애착의 부활

강렬한 성적 욕구는 느끼되 마땅히 발산할 상대를 찾

을 수도 없고, 또 성적인 행위를 겁이 나서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의 청소년은 그런 관심의 대상을 자연 이성편친(異性片親)에게 돌린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과 집안 물정을 좀 아는지라 사랑과 성적 욕구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또 그래서 안된다는 초자아superego도 발달되어 있어 이들은 자율적으로 욕구를 자제한다. 그렇더라도 결국은 에디프스 애착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컨대 소녀라면 '나는 엄마처럼 아빠를 홀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어머니가 소홀히 하는 '아빠 옷 풀라 드리기'를 자청한다. 남아아이라면 빈둥거리는 아버지 대신 방과 후 알바이트를 해서라도 불쌍한 어머니를 돕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속으로 겁내지만, 동시에 만약에 부자간에 환관 붙어 싸운다면 힘센 자기가 헛가닥 정신이 나가 아버지를 눕혀버리게 되면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더욱 겁낸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이성편친과 청소년은 이런 밀착을 겁내서 서로가 멀리 하게된다. 이때에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대개 부모쪽에서 자식유혹을 포기하지않아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는 청소년은 사랑의 대상을 안전한 가족 외의 사람들 가운데서 찾게 된다.

4. 초자아의 강화

고조된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은 한편으로 청소년을 겁나게 한다. 그러한 욕구에 따라 멋대로 행동하다가 부모와 이웃에게 미움받고 벌받거나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청소년의 마음속에서는 본능적 욕구를 스스로 억제할 초자아가 동시에 급격히 발달하고 강화된다. 그래서 서로가 막강해진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끼여서 이들의 자아는 때로 힘을 잃고 퇴행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이드가 만족되면 초자아가 용서하지를 않고, 초자아가 만족되면 이드가 가만히 있지 않는 진퇴유곡의 입장이 닥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드와 초자아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묘책을 찾아 헤매는데, 그럴 때 좋은 것이 데모와 종교활동이다. 즉 데모로 사회정의의 외치니 초자아가 만족되며, 또 데모진압대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격렬한 신체적 저항을 하니 공격욕구가 또한 충족된다. 어떤 때는 청소년과 청년 남자가 손을 잡거나 몸을 서로 대고 길바닥에 눕는

식의 데모를 하니 이때는 성적 욕구가 대만족을 한다. 종교도 그 비슷하여 남녀학생이 어울려 찬송가를 부르며 오빠 누이라는 호칭을 부르니 초자아도 만족하고 이드도 만족한다. 문학, 미술, 음악에의 심취도 본능적 욕구와 초자아 모두를 충족시키며, 남자가 어울려 하는 이런 행사는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은 발달 강화된 초자아가 있는데다 정상사고력formal thinking까지 발달되어 있는고로 이들은 때로 자기 주관을 크게 내세워 객관적인 것들을 무시하려 든다. 이들은 한번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죽자살자 매달린다.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자기 또래 다른 청소년들 역시 그들대로 어떤 독특한 이데올로기에 몰입되어 있음을 보고 기가 막혀 차차 자기 외교집을 꺾는다. 이런 외교집을 Piaget는 정상사고력의 자기중심주의ego centricity라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족의 가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까닭에, '애국전쟁'의 전투에서는 삼대 후반의 병사들이 그중 용맹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스스로 성(性)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성과 어울려도 실제 성관계는 행하지 않는다. 남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맺는다면 조만간 거세당하는 무의식적 두려움이 있어서이고, 또 여자란 다소간 어머니 같은지라 그 여자에게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다. 여자인 청소년은 또 몸의 상처를 두려워하고, 오르가즘과 함께 몸이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식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며, 초자아가 있으며, 임신과 성병을 두려워해서 이다.

청소년 후기

1. 정체성 수립

청소년 후기는 정체성(正體性)identity을 수립하는 시기다. 그 전까지는 부모, 스승, 선배, 기타 어른들을 본받는 것에 치중하였으나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시점이 바로 주체성 형성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 남자의 길이나, 여자로서의 길이나를 확고히 다지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생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계층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나와서 다른 집단문화에 들어가느냐는 선택도 확실히 하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도 이때 수립해야 한다. 또는 장차 무슨 일과 무슨 계통의 직업을 택하느냐도 결단내려야 하고, 종교도 상당수가 이때 정한다. 그래서 그는 점차 자기주관을 뚜렷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린다. 마침내 그는 그가 속한 집안과 동네, 사회에서 아무개 하면 '아, 그 사람!' 이라고 모두가 금새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를 통괄해 개인적 정체성 personal identity라는 말을 쓴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수립이다(Erikson 1956).

정체성 수립은 시기를 적절히 맞추어야 한다. 그 수립이 너무 빠른 경우엔 청소년 전기에서 이미 딱 부러진 자기 주관을 갖게 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는 좀 더 세상과 자신을 파악해 좀 더 자기 발전을 시킬 소지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니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체성 미리마감' identity foreclosure은 문화적·경제적으로 빈곤한 층에 많은데, 예컨대 빈민가나 산골 농촌지역 청소년들에서 자주 본다.

반대로 정체성 수립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행동거지와 감정굴곡이 변화무쌍하여 종잡을 수 없는 녀석으로 낙인찍히거나 매사에 걸도는 청소년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를 '정체성 방산' identity diffusion이라 한다. 이들은 쭉뚝거리고, 자신감이 없고, 우울하고, 혼동스러우며, 술·환각제·마약과 변태적 성생활 sexual perversion에 빠지기 쉽다. 서양으로 치면 히피가 그 대표적인 예다. '정체성 혼돈' identity confusion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성별·사회적·직업적·문화적으로 정체성 이룩과는 반대방향으로 나가 혼돈상태에 빠진 경우를 두고 말한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정체성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적절한 정도의 위기를 맞는 경우를 '정체성 위기' identity crisis라 부르며, 이때 갖가지 정신증상 mental symptoms이 나온다.

2. 진화와 남녀간 사랑에 대한 준비

청소년 후기에는 이성(異性)에 대한 사랑이 활짝 눈 뜨는 시기다. 그 동안에는 동성과 주로 친밀하게 지냈으나 이제부터는 관심이 이성에게도 많이 가서 교우가 시작되고 사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동성간의 우정도 격이 높아져 단순히 인생재미를 같이 나눌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뛰고자 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청소년기의 종료

위에서 언급한 폭풍우의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그 종료점을 미국 청소년 정신분석가 Blois(1962)는 다음과 같은 심리상태가 오는 때로 잡는다- 즉, ① 어린시절이 그의 기억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느낄 때, ② 과거와 미래를 현실적 입장에서 참작하여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할 때, ③ 자기도 부모나 조부모처럼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 때, ④ 무한한 꿈을 상실할 때, ⑤ 인간이란 의로운 존재이고 또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을 알며, 인간에게는 남에게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러니 자기도 다른 인간과 가까이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⑥ 고독과 죽음에의 두려움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다.

한편 청소년 일부는 지낼 만큼 지내고 누릴 만큼 누리고서도 그래도 모자라 이런 전환기 발달과정에 무한정 머무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청소년기의 '연장 moratorium'이라 부른다.

REFERENCES

- 洪剛義(1984) : 第2個別化時期로서의 靑少年期. 精神醫學報 8 : 395-400
- 洪剛義(1997) : 인간의 발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神經精神醫學. 서울, 하나醫學社, pp35-54
- Blois P(1962) : On adolescence :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London, Macmillan
- Erikson E(1956) : Childhood and society. second edition, New York, Norton, 1963, pp247-274
- Gemelli R(1996) : Normal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pp445-519
- Havighurst RL(1972) :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third edition, New York, David Mckay
- Lidz T(1983) : The person. revise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pp306-375
- Schwartz LA(1974) : Adolescent psychiatry. In : Handbook of psychiatry. P Schomon, VD Patch(eds.), third edition, Japan, Lange & Maruzen, pp574-588